

2005 국제축산박람회 국내외 홍보에 적극 나서

- 생산자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박람회 기대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한국 축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될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2005)가 오는 8월 31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전의 대전무역전시관(KOTRA)과 EXPO 과학공원에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위원장 윤희진)에서는 동박람회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외국 기자들을 국내에 초청,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는 대부분 아시아지역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17명(외국기자 10명)이 참석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 축산현황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본고는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현황과 저널리스트프로그램에 함께 동행하면서 취재한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 외국 기자 초청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이 지난 5월 9~12일(3박4일간)동안 있었다.(외국 저널리스트들이 복덕구 축산박람회 전시담당(좌)에게 박람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지난 1991년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1997년 제4회 대회까지 격년제로 행사가 치뤄지면서 양계 산업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국내에 몰아닥친 IMF 등으로 축산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1999년 대회를 양계 단일 박람회로 개최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고 참가업체 및 관련인들을 중심으로 종합축산박람회로 확대, 개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될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장소(KOTREX옥내 전시장(좌)과 EXPO 에어돔전시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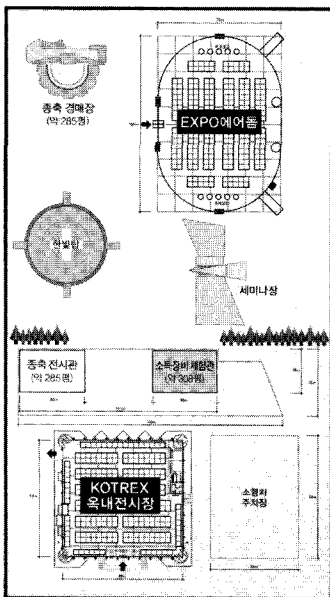
표1. 국제축산박람회 역사 및 개요

회차	명칭	주제	기간 및 장소	참가업체 및 부스	참관객수
1회	'91한국양계박람회 (KOPOEX '91)	미래를 향한 양계산업	1991.10.10 - 12(3일간), 올림픽공원	8개국 77업체, 156부스	30,200
2회	'93한국양계박람회 (KOPOEX '93)	한국양계산업의 신진화	1993.8.19 - 21(3일간), KOEX	14개국 135업체, 327부스	91,827
3회	'95한국양계박람회 (KOPOEX '95)	한국양계산업의 세계화	1995.8.23 - 26(4일간), KOEX	15개국 138업체, 338부스	98,000
4회	'97한국양계박람회 (KOPOEX '97)	환경친화적 첨단 양계산업을 연다	1997.6.24 - 27(4일간), KOEX	12개국 129업체, 398부스	100,000
5회 (통합)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KISTOCK '99)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전개	1999.11.12 - 15(4일간), COEX	15개국 155업체, 440부스	82,621
6회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KISTOCK 2001)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 축산	2001.7.5 - 8(4일간), COEX	16개국 163업체, 502부스	90,524
7회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 (KISTOCK 2003)	친환경 축산업의 전개로 국민에게 건강을	2003.7.3 - 6(4일간), COEX	15개국 164업체, 538부스	91,000
8회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KISTOCK 2005)	깨끗한 환경, 안전한 축산물	2005.8.31-9.2(3일간)	15개국 160업체, 500부스	120,000*

*예상인원

1999년 1회 대회를 종합 축산박람회로 치루게 되었다. 이후 2001년 대회까지 대한양계협회가 경험을 살려 주관단체로 축산박람회를 이끌어왔고 본회를 비롯해 공동주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양돈협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가 순회하면서 주관을 하기로 결정이 되던

서 2003년은 낙농육우협회가 개최를 한 바 있으며, 2005년은 장소를 대전으로 옮겨 양돈협회가 주관단체로 박람회를 추진해오고 있다.



한빛탑 주위로 배치된 전시장 위치도

지난 2003년도 국제축산박람회는 전반적인 축산업의 불황과 사스(SARS)의 영향,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운 가운데 박람회를 치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을 열어 우리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축산물 소비 증진에 기여를 하였고, 침체일로에 있는 축산업의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람회 성격상 생산자가 증가 될 경우 중부권이나 서울 외곽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홍보부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박람회의 장소를 대전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홍보도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될 박람회장은 KOTREX옥내 전시장(4,488㎡, 248부스)과 EXPO 에어돔전시장(7,000㎡, 232부스)으로 나뉘어 전시가 이루어지며, 실외에는 중축전시관, 소독장비 체험관, 세미나장, 중축경매장이 한빛탑과 전시장 주변으로 배치되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해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

이다. 특히, 1993년도 세계적인 행사로 치뤄진 대전 EXPO공원과 함께있어 참관객들이 축산박람회 관람 뿐만 아니라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시 담당자 복덕규 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직접 축산을 영위하는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로 운영하되, 해외 투자단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박람회로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며, 또한 소독설비, 분뇨처리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박람회와 종축경매, 축산물시사회, 학술행사 등 참여박람회 등을 겸비한 종합 박람회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양계분야에서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행사는 물론 재래닭전시회, 국제 심포지움 등이 계획되어 있다. 업체 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KOTREX의 경우 1부스(3m×3m)당 독립부스 100만원, 조립부스 120만원이며, EXPO에어돔은 독립부스 90만원, 조립부스 110만원으로 금년에는 500부스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나 북대전톨게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국제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전무역전시관으로 20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박람회장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현재 대전무역전시관옆에 건설 중인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2007년에는 한층 높은 수준의 국제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외국 기자들 한국 축산업 현장을 돌다



▲ 이번에 참가한 외국 저널리스트는 9개국에서 10명이 참석하였다.(고려비엔피를 방문하고 기념촬영)

저널리스트프로그램은 전세계 축산관련 잡지사 편집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축산업 현황은 물론 축산 박람회 홍보를 통해 외국 축산인들이 국내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행사이다. 이같은 행사는 이미 태국 VIV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실시해온 프로그램으로 태국 축산박람회를 외국에 알리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첫날 외국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대부분 한국에 처음 방문한 기자들이었으며, 일본 기자는 8번째, 인도네시아 기자는 2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날 수원에 있는 축산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 축산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대전에 위치한 박람회장 견학, 동양최대 닭고기 가공공장인 (주)하림 방문으로 둘째날을 마무리하고, 셋째날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고려비엔피(KBNP)를 방문하여 백신 공정과정을 견학하고, 낙농산업의 현장인 젖소 관광목장인 태신목장을 방문한 후 인천의 CJ사료

구소를 방문하여 한국 축산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대전에 위치한 박람회장 견학, 동양최대 닭고기 가공공장인 (주)하림 방문으로 둘째날을 마무리하고, 셋째날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고려비엔피(KBNP)를 방문하여 백신 공정과정을 견학하고, 낙농산업의 현장인 젖소 관광목장인 태신목장을 방문한 후 인천의 CJ사료

공장을 방문하여 사료공정과정을 둘러보았으며, 여의도에서 농림부 관계자와의 저녁식사 후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둘러 쇠고기 이력제를 홍보하는 일정으로 셋째날을 마무리하였다. 출국하는 마지막날에는 국내 축산관련 잡지,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일정이 끝난 후 일부 기자(태국, 싱가포르)들은 2-3일의 일정을 더 묵으면서 국내 축산현장을 둘러보는 등 국내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음은 이번 프로그램중 방문했던 업체를 소개하고 외국기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① 축산연구소



▲ 축산연구소 현황을 듣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축산연구소에서는 윤상기 소장을 비롯, 박용균 축산기술지원과장 등 축산연구소 직원들이 참석해 축산연구소의 역사를 소개하고, 최근의 축산현황, HACCP추진상황, 동물유전자원 개발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952년 처음 설립된 축산연구소는 현재 146명의 연구진이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으며, 1년에 50여건의 특허가 출원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계분야에 있어서 산란계는 2009년에 닭고기는 2010년에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HACCP적용을 위한 연구

가 소개되었다. 저널리스트 참가자들은 HACCP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국내 축산 현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② (주)하림



▲ (주)하림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주)하림 김대식 홍보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지난 2003년도 공장 화재사건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야 했다. (주)하림의 김대식 홍보팀장이 국내 육계산업의 현황과 동사에 대한 소개는 물론 도계과정 등을 직접 보여주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림은 현재 도계장 규모는 동양 최대 규모로 1일 40만수를 도계할 수 있으며, 국내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1,800명의 종업원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100억원으로 순이익이 13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는 5,700억 매출에 200억의 순이익을 목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닭고기 소비성향을 보면 50세 이상은 넓적다리살(드림스틱), 30-50대는 닭날개, 30세 이하는 가슴살을 좋아하는 것으로 하림 매장을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내용을 소개하면서, 200개가 넘는 가공제품의 제품개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TV홈쇼를 통해 닭고기 홍보 등 소

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삼계탕은 물론 작은 체중을 소비하는 대한민국의 식습관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닭털, 내장 등의 부산물 처리에도 관심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단시일내에 소비의 회복을 이룬 한국의 사례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하였다.

③ 고려비엔피(KBNP)



▲ 고려비엔피 박영호 이사(가운데)로부터 백신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고려비엔피(KBNP)(대표 송기연)를 방문,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제품공정 등을 박영호 이사의 설명이 있었다.

(주)고려비엔피(대표 송기연)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가축의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국의 가축약품도·소매점, 가축병원, 사료 공장 및 대규모 농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축산업의 생산성 증가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001년 12월 충남 예산군에 KVGMP 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 이전하여 생산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아울러 우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QC)요원과 최신식 기계 설비로 백신, 항생, 항균제, 영양제, 소독제, 발효미생물제, 기타 등 총 170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립한 부설기술연구소는 향후 동사가 생명공학의 선두기업으로써 확고한 위치 확보와 고부가가치 사업의 확실한 기반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고려비엔피는 2001년 12월 바이엘코리아(주)의 백신사업부를 인수하여 힘(力)백이라는 브랜드로 동물용 백신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백신산업에 집중투자를 위하여 백신공장을 지난해 6월 같은 장소에 이전, 완료한 바 있다.

백신공장은 공기의 흡입부터 먼지나 세균과 바이러스 병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조과정까지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외국 기자들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생산되는 한국의 백신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수입국으로써의 한국백신산업이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④ CJ 사료

인천에 위치한 CJ 사료공장 과 CJ사료중앙연구소(RND센터)를 방문, 김우식 상무(중부사업부)와 최병렬 소장(중앙연구소) 등의 설명으로 전반적인 사료생산과정과 사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관하였다. CJ사료는 지난 1953년 제일제당공업(주)를 설립한 이후 1973년 부산에 풍년사료로 사료사업에 뛰어들었다. 1979년에는 인천에 제2사료공장을 준공, 1987년에는 사료품질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국내외에 2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 1,800톤으로 전축종에 걸쳐 435개 품목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공장

은 무항생제라인, 항생제라인, EP라인으로 나뉘어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등 외국으로부터 까다롭다는 HACCP관리에 대한 인증서를 받는 등 제품생산 과정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외국 기자들은 각 라인별로 사료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중앙연구소의 집중투지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 CJ사료중앙연구소 최병렬 소장으로부터 사료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의 축산업 높이 평가



▲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저널리스트들은 국내 축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외국 기자단은 이외에 태정농장의 관광농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낙농산업 현장을 체험하였으며, 하나로 클럽을 방문하여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유통현황을 체험하였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자들은 국내의 발달된 축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안전성을 위주로 모든 축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관광목장(낙농) 이외는 양계와 양돈 농장을 방문하지 못해 실질적인 축산현장을 보지 못한 것에 대

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축산박람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박람회 장소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됨으로써 홍보가 미흡할 경우 교통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번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우수 기업들이 동남아 등 외국에 높은 기술력으로 수출은 물론 활 동무대를 넓혀가면서 국내 축산업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문일정이 너무 빡빡해 방문지마다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짧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았으나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인 만큼 국내 축산업을 이해시키고 축산박람회를 홍보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한류열풍이 전세계로 퍼져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았다. 이번 박람회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리를 대전으로 옮겨 처음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 가 국제축산박람회로서의 입지가 확고해 질 수 있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축산인들도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훌륭한 앞선 기술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인식, 축산인들의 관심속에 박람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